

보도시점 2026.7.10.(금) 06:00
< 7.10.(금) 석간 > 배포시점 2026.7.9.(목)

'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

- 총 904억 원 규모, 10개 지원사업 대상산단·기업 최종 선정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26년 산업단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일괄 발표하였다.

금번 공모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탄소중립 전환(GX), 근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총 10개 사업, 76개 과제(총 904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청주·충주·포항·마산·창원·전주·여수 등 전국 각지의 혁신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산단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산단 중심 지역성장을 주도한다.

산단의 M.AX 확산을 위한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은 포항·청주·구미산단, 스마트물류플랫폼 사업은 마산·충주산단을 선정하였다. 첨단 통신 및 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위한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창원산단, 엣지AIDC 실증 시범사업은 부산 명지녹산 산단을 각각 선정하여 본격적인 산단 AX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친환경·무탄소 산단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마산·아산부곡·충주산단에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실증사업장 구축 등을 위한 FEMS+ 구축사업은 경남·충북·부산·울산·충남·전북·대구·경북 지역 소재 14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 (대전·전주·사천·마산·부산·춘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사업 (여수·포항) 대상 산업단지도 확정하여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R&D 분야의 경우, 회색빛 산단의 청년친화형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부산과 인천, 원주산단을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대상 산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R&D)은 지역별 산학연 실정에 맞는 41개의 컨소시엄을 확정하여 하반기 혁신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산단이 한층 더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금번 선정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상우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유영찬 (044-203-4433)



분 야	사업명(내내역)	선정결과(산단)	지원개소	'26년 지원액
M.AX	AX실증산단 구축	포항, 청주, 구미	3개	20억원
	스마트물류플랫폼	마산, 충주	2개	10억원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창원	1개	20억원
	엣지AIDC 실증 시범사업	부산	1개	140억원
에너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마산, 아산, 충주	3개	6억원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경남 6, 충북 2/ 부산, 울산,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각 1개 기업	14개	6억원 (업체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대전, 전주, 사천, 마산, 부산, 춘천	6개	50억원
	디지털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여수, 포항	2개	여수 30억원 포항 8억원
문화	문화선도산단 조성	부산, 인천, 원주	3개	34억원
R&D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중부권 7, 대경권 10, 동남권 10, 호남권 9, 3특 5개 컨소시엄	41개	2억원 10개 3억원 28개 6억원 3개